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智慧)와 자비(慈悲)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와 자비와 다른 의미일 것 같아 상담 드리게 되었습니다.

숨을 보면 일부러 늦게 오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구요.

사실 제사는 장손이 지내는 거고, 저희 같은 사촌 동서보다 오히려 그 집 며느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큰 집 형님이 알아줘 제사 참석도 안하고 싶지만 혼자 계산 시아버지 체면을 생각해 서 가고는 있습니다.

**A** 질문하신 지혜와 자비는 불교 전체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수행과정에서 의심(疑心) 또는 의정(疑情)이 하나 일어나면 그것이 왜 그럴까를 풀어가면서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A** 어느 가족이든 남녀노소가 다 섞여있고, 그 가정마다 특성이 다르지요. 그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연장자의 몫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주부들은 제사나 명절에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일로 몸이 좀 피곤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불

‘지혜’는 ‘육바라밀의 완성’으로 수행정진의 목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수행과정을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자비는 뭐가 다르죠?

지혜는 수행 목표, 자비는 선행 늘고 불행 줄이는 도움

모두 섭렵한 후에, 또는 동시적으로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사의 고해를 건나 이상경(理想境)인 열반(涅槃)의 저 언덕에 이르는 방편인 것입니다.

필요한 신경전들이 피곤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불편한 마음과 신경전의 근원 원인은 이기심, 자기중심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담자께서는 큰집 형님은 자신의 며느리에게 일도 시키고, 손아래 동서(작은 어머니를) 공손히 받들도록 가르치다면서 서로 돕는 관계와 분위기를 만든다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님 쪽에서 자신만을 고집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이지요?

혹자는 ‘자비’를 글자만 틀리지 사랑과 뜻은 같다고 하지만 이것은 참뜻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비(慈悲)의 자(慈)는 선행과 기쁨을 계속 늘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비(悲)는 슬픔과 악한 일들이 자꾸 줄어들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법회를 할 때 ‘대자대비(大慈大悲) 하신 부처님아시여’ 라는 구절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자는 선행과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 달라라는 것이고, 대비 역시 불행과 나쁜 것은 많이 줄어들라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위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이질감이 있는 느낌이 들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분위기를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기본 좋게 만나서 맛있는 것 드시면서 수도도 떨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언짢은 마음도 푸시고 이해도 시키는 건 어떨까요.

**Q** 저희 집은 형제가 둘입니다. 큰 집(시아버지의 형님 댁)은 외아들이고요. 큰집에서 할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항상 저와 동서가 가서 제사 음식 정만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랫동서 입장에서 제사는 장손 책임이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 한국의 전통이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한 장손의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장손의 입장을 더듬어 살펴주시면, 아마 감동하여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실 지도 모르겠네요.

2년 전 큰집 형님이 며느리를 보았음에도 사촌 동서인 저희들한테만 제사음식 정만을 시킵니다. 저희가 “며느리는 제사 준비 같이 안하느냐”고 하면 “몸이 약해서 제사 음식하면 다음날 회사 출근을 못한다”면서 자기 며느리만 감싸고들입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 준비하러 조금 늦게 가면 싫은 내색하면서, 며느리만 위하는 모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24.org  
청소년사이버 상담팀 아하박스 www.ahsex.org  
후원계좌 001-01-2021-361  
국민은행(예금주:사단법인 자비전화)

“남은 인생 음악 연주로 회향할래요”

행복법당 탐방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오늘은 아파치(Apache)를 연습해 봅시다. 이전 아메리칸 인디언 음악이예요. 드럼이 말 달리는 듯한 소리를 내면 바로 그 다음 퍼스트기타가 화살이 ‘승승’ 날아가듯 기타를 치는 겁니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음악에 심취해 마음 맞는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 좋아하는 가수의 곡을 카피해 연주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약기 앞의 어르신도 학창시절 어설피나마추어의 실력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1월 21일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인) 대강당, 복지관 특별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고양호수실버밴드’의 어르신들이 단장의 지휘 하에 연주에 몰두하고 있다.

호수실버밴드는 평균연령 80세가 넘는 국내 최고령의 음악인 5인조로 구성된 밴드로 2001년 5월 12일 창단했다.

퍼스트기타를 맡고 있는 지연영(76·여) 어르신은 ‘베사메루초’, ‘폼나게 살거야’ 등 흘러간 옛 노래나 ‘범블부기’, ‘아파치’와 같은 연주음악을 듣고 음계를 판다. 타칭 ‘한국의 루이 암스트롱’인 박정근(트럼펫·84) 단장은 각 파트가 연주해야 할 부분을 손수 악보를 그려 나눠 준다.

실력과 어르신으로 구성된 호수실버밴드는 2001·2006년 노인여가경연대회에서 대상 수상, 2008년 전국 실버밴드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외부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었다.

어르신들의 경력도 화려하다. 박정근 어르신은 해군 군악대 단원을 역임하고 공보부에서 주최한 작곡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베이스 주자로 활약하는 마형인 정인섭(88·남) 어르신은 한국노인악단 창단 멤버이자 새별악단, 라미라 악단의 단원을 역임했다.

키보드스트는 문병철(85·남) 어르신으로 미8군 문화부공연단원출신에 국방부와 KBS 악단에서 활동했다.

5인조 밴드에서 빠져서는 안 될 파트가 바로 드럼과 기타. 고양호수실버밴드에서는 주요 파트를 여성이 맡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지연영 어르신은 여성 최초 악단인 ‘새별시스터즈’의 창단 멤버다. 기술적인 반주기법이 필요한 일렉기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기타를 잡으면 쉬운 연주가 된다. 조병진(72) 어르신은 여고시절 밴드 리더로 활약했다.

이들은 2001년 창단 이후로 크고 작은 행사, 사회복지 시설 및 복지관에서 200여 건이 넘는 초청 공연과 위문 공연을 해왔다.

실버호수밴드 활동은 멤버 어르신들에게는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억을 남겼다. 박정근 어르신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누군가에게 들려줄 즐겁게 한다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쁘게 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연영 어르신은 “위문공연을 갔을 때 옛 노래를 들으며 회상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잘



평균연령 80세가 넘는 국내 최고령 밴드 ‘고양호수실버밴드’ 멤버들이 실버밴드 경연대회를 앞두고 연습하고 있다.

2006년 창단 ‘한미누리예술단’ 일산복지관 특화 사업  
고양호수실버밴드, 각종 대회서 상 휩쓸며 노익장 과시

들을 수도 없는 곡들을 연주해 듣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할 때 보람 있다. 남은 인생을 음악에 걸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 가겠다”고 말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80여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특화된 사업이 고양시실버호수밴드를 포함한 한미누리예술단이다.

한미누리예술단은 복지관 내 단순 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동아리사업을 전문화된 예술단으로 재구성해 재능 있는 노인들의 전문성을 개발, 이를 통해 새로운 노인여가문화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는다.

2005년 창단한 예술단은 고전·현대무용, 합창단, 풍물, 에어로빅, 아코디언 등 각 분야의 기능을 소유한 어르신으로 공연팀을 구성해 무료공연을 하고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다.

이 밖에 복지관은 호수문화대학(3년제), 복지문화대학원(2년제)을 설립해 여가, 교육,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고령자 복지향상 및 평생교육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기존의 타 노인대학과는 구별되는 3년제 정규대학의 체제를 도입해 프로그램의 차별화·전문화를 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을 꾀해 지역사회 복지향상 및 평생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21세기 신개념의 고령자중심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 만



왼쪽부터 정인섭(베이스), 문병철(키보드), 조병진(드럼), 박정근(트럼펫), 지연영(기타) 어르신.

복지관은 전국 최대 이용률을 자랑한다.

노인 스님은 “2009년 1월 10일 조사한 결과 복지관 이용자는 2만1750명, 일일 이용인원은 2800여 명으로 전국 최고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차별화·고급화·전문화로 전국 노인복지관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경기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가장 높은 점수로 최우수 노인복지시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나는 기자 bohjung@buddhapia.com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족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들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방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랑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열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하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준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총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범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